

그의 원력이 우리의 마음에서 성취합니다.

사람의 연(緣), 소리의 연(緣), 박범훈님이 맺은 인연은 실로 대단합니다. 이러한 인연까지 대중들과 나누려는 발원(發願)을 오늘 함께 하는 것은 많은 불자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워내는 악기들의 숨결과 합창의 장엄은 서로를 소통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불심(佛心)의 인연으로 초대하는 것이자 베품입니다.

무심하게 지나치다 스친 옷깃만으로도 인연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휘감는 그의 공력이면 도 대체 어느 정도 인연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통하게 하고 지 휘하는 듯하여 그의 헌신과 일생의 원력(願力)인데도 우리의 마음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감동의 끝에 오는 벽참, 그리고 그 뒤로 오는 정화(淨化)는 삶을 맑게하는 정진의 간절함과 닮아 있습니다. 음악으로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내고 민족의 정서, 우리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모습은 수행자의 모습을 닮아있기도 합니다.

관객들은 언제나처럼 그의 공덕(功德)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불교음악이 항상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의 발원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미 이루어진 공덕은 물론 후대에 이어지는 전통의 진정함이자 선업(善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술에 있어서 창작은 생명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어 온 전통을 새로운 창의로 확장하는 것이 시대의 책무로 여기는 예술가의 고뇌와 헌신이 있기에 미래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전통은 온전하고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사람도 그의 웃음에서 친숙함을 느끼듯, 이미 그의 자취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에서 상당히 친숙해 있습니다. 언제나 초발심(初發心)인냥 항상 순수하고 겸허한 모습은 거장의 조건인가 봅니다.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통 불교음악을 창작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다시 이를 요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훌륭한 예술문화를 만들어 가는 박범훈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